

## 사물의 죽음 이후, 새로운 존재론적 질서로 환생한 세계

박예나가 구축한 세계는 사물(thing)의 규칙과 질서로 생동한다. 그러므로, 그의 작업에서 사물의 존재 방식은 더 이상 기존의 효용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물의 가치가 전복된 순간, 즉 쓸모가 다한 사물로부터 고유의 존재성을 탐색한다. 이는 인간의 감각 너머 사물의 '실재'를 긍정하는 것이며, 마치 칸트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물 자체'에 조금이나마 다가서려는 시도처럼도 보인다. 인간 중심적 시선, 그 이성과 합리의 조건 위에 설립된 현상이자 세계가 아니기에, 사물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붕괴한다. 그리고 마주하는 것은 사물의 죽음으로부터 발생한 존재의 환생이다. 그의 작업에서 사물의 죽음은 효용 가치의 소멸이며, 이는 존재의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다. 박예나가 가설한 사물 고유의 몸짓으로 충만한 이 세계는 사물과 인간 사이, 그 관계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초창기 작가는 효용성이 다한 사물에 주목하고, 쓸모로부터 떨어진 사물 고유의 질서와 균형, 낯선 감각을 탐색하였다. 이를테면, <경계 짓기> (2015)에서 박예나는 일상에서 마주친 버려진 사물을 주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가설한다. 다리가 부러진 의자나 문짝, 바구니와 같은 물건은 임의로 나열되고 열기설기 기대어 임시적 구조, 공간을 형성하지만 이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일쑤다. 작가는 이 허물어짐과 재구축의 과정에서 사물 간의 일시적 균형이 발화하는 긴장감을 조형적으로 포착해낸다. 이러한 긴장의 형식은 인간의 시점에서 온전히 통제 불가능한 인식 너머 사물의 질서를 환기하며, 작가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불안정하게 뒤흔들고 주체와 타자 사이 설립된 인식 구조에 내재하는 불안정함을 감각적 차원에서 포착해낸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조금 더 건축적인 형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과정을 위한 구조>(2015)에서 작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기능이 다한 사물들을 찾는다. 이를테면, 전장에서 생활 양식으로부터 탈구된 '부산물'로서의 사물들을 수집, 재구성하던 방식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진다. 더 정확히는 건물의 쇠락과 재건, 철거와 구축 사이에 존재하는 일시적 시공, 공사 현장을 찾는다. 공사 현장은 이전과 이후의 변형을 전제로 한 전이의 단계이며,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하는, 하지만 현재로는 기능이 부재한 일시적 장소이다. 작가는 이러한 장소에서 수집한 폐자재, 작가의 말에 따르면 "과정의 파편"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 공사장-폐허-로부터 발생한 임시적 구조를 구축한다. 오늘날의 미술에서 일상의 도처에서 발견하는 폐허의 형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 되었지만, 대체로 이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탐구나 미래를 향한 SF 서사도 아닌, 그저 조금은 낯설고 기괴한 현재의 미감 차원으로 소비해온 것이 사실이다. 박예나의 작업이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폐허의 형식을 표피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완성에 속하지 못하게 된, 결코 완성될 수 없게 된" 상태의 사물을 동원함으로 미래와 현재 사이 모종의 시공을 가설하려 하기 때문이다. 폐허는 단순히 낡고 쇠락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필두로 계속해서 스펙터클을 생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폐허의 출현은 근대화의 시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욕망이 붕괴되는 신호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폐허란 결국, 실패한 미래의 증거로 지금, 여기에 남겨진 흔적이다. 그러므로, 효용성을 상실한 채 현실에 누적된 폐기물은 현재의 일부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잔해이며, 이미 도래했어야 하는 미래의 빈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폐허의 형식을 담지한, 폐기물을 활용한 박예나의 임시 가설물은 물리적 파손 이전 시간적 파손의 형식이며, 시간의 전이 과정에서 어긋나 불현듯 출현한 오류의 시공이다.

오류의 감각은 때로는 사물의 형식으로 귀결되어 주체와 객체 사이, 관습적 위계를 전복시키는 오작동(malfunctioning)으로 발현된다. 박예나는 <약간의 반가움과 무거움>(2017) 혹은 <적당한 대화를 위한 소파 세트>(2016) 등을 통해 사물에 이전에는 없었던 모종의 움직임을 부여한다. 해당 작업들에서 사물들은 기능과는 무관한 몸짓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밝힌다. 여기서 오작동은 기존 기능으로부터 탈주함으로 오히려 사물들 그 자체에 다가서는 상태를 암시한다. 말하자면, 작가는 일상 사물의 사용방식에 개입함으로, 그것들이 본래의 영역으로부터 이탈하여 움직이도록 계획한다. 그렇게 마주한 생경한 상황과 낯선 감각은 관습화되고 고착된 경계를 흐리고, 사물에 내재한 고유의 가치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공기튜브에 설정된 인터플레이를 통해 형태를 갖추었다가도 다시 무너져 내리는 소파(<적당한 대화를 위한 소파 세트>, 2016)는 오래 해왔던 관습적인 대화의 방식을 방해하고, 스튜디오를 방문한 이들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들쭉거리는 사물들(<약간의 반가움과 무거움>, 2017)은 마치 공간의 한편에 소리 없이 쌓인 짐(또는 사물) 더미에 영혼이 깃든 듯 낯선 감각을 선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볼 수 없는 것>(2016)에서는 관객에게 “뒤꿈치를 들고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걸어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사용자는 한쪽이 치솟은 목재 패널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감으로 그 아랫면에 부착된 ‘나-관객-는 볼 수 없는’ 드로잉을 ‘전시’하도록 하는 필수적 도구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기능이나 역할로부터 탈주한 사물의 상태에서 모종의 역전된 관계 양상을 살피는 박예나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행위자(actor)로서 비인간-사물-을 대하고, 그들에게 내재한 잠재적 행위성(agency)을 이끌어내는 듯하다. 그의 작업에서 관객은 시선의 주체로서 위계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사물이 창출한 상황은 인간과 사물을 대칭적 구조에 처하도록 한다.

이렇듯 작가는 사물의 죽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대상에 대한 도구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사물 고유의 존재론적 지평을 목격하게 한다. 사물의 죽음을 기능의 역전을 통해 지연시키고, 이로부터 새로운 질서로 생동하는 세계를 가설하는 박예나는 가상과 현실을 가로지르며 모종의 시공을 설계하기도 한다. 그는 영국 글래스고에 머무는 동안 약 1년에 걸쳐 건물이나 도로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일컫길 ‘지구의 인공 각질’(<Dead skin cells of the earth>, 2020)이라 칭한다. 도시 사회를 구성하는 표면의 일부로서 이 파편들은 여러 정보 값을 지닌다. 이는 산업화된 공정에서 일괄적으로 부여된 패턴이나 특유의 문화양식을 보여주는 장식성, 개보수 차원에서 덧입혀진 페인트의 물리적 층위 등 문명이란 이름 아래 구축된 세계의 물질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렇게 수집한 대상들을 3D 스캔하여 온라인상에 업데이트한다. 데이터화하고 아카이브로 축적된 이미지 더미는 웹으로 이전된 가상의 박물관과 같다. 폐기물을 수집한 곳은 구글맵에 일지와 같이 기록되어 클릭 한 번으로 물리적 시공의 경계를 넘어 접근 가능한 장소-이미지가 되며, 부피가 소거된 채 광활한 웹 상을 떠도는 잔해들은 확대/축소를 통해 다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 한편, 박예나는 가장 최근의 작업 <몸들의 땅, 미지의 신화> (2022)에서 물리적 부피가 소거된 일상 사물의 껍질이 쌓여 이룬 언덕 위를 거닐며, VR을 통해 환영과 같은 이미지로 디지털화된 인간 문명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예술작품들을 마주하게 한다. 작가는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지적 소산물들을 화면 위 디지털 이미지로 대체함으로 그것이 기념하는 가치 - 신, 창조의 순간, 실존, 자유와 혁명, 삶과 죽음, 이상향 등 - 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다시 픽셀로 해체하거나, 이미지 위로 유령과 같이 유영하는 사물의 실루엣을 띄움으로 그

가치를 격하시킨다. 더 이상 물리적 실체로서 아우라를 획득했던 작품은 그 존재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상징적 체계로부터 탈선하여 이미지라는 환영 그 자체로 환원된다. 시각을 중심으로 재편된 VR의 초감각은 인간의 관점에서 부여한 질서의 붕괴를 이끌고, 모종의 감각과 서사로 구축된 가상의 영역은 우리가 발 딛고선 현실의 가치 체계 위 또 다른 시공의 레이어를 덧씌운다. 여기서 디지털 데이터로 대체된 현실 사물의 존재 방식의 변화는 물질계를 벗어난 가상계로의 도피가 아니다. 사물의 표면에 부여된 환영, 그 기능과 가치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지연시키는 또 다른 방편이고, 사물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존재론적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물리적 실체로서의 아우라가 사라진 이미지로서의 사물들은 가상의 공간에 기대어 선형적 시간의 질서를 비선형적으로 깬어내고, 현실에 부유하는 사물의 파편을 사건화하여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결국, 박예나가 가설한 시공은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있는 집합체로서의 질서 위에 구축된 세계이다. 여기서 인간과 사물은 균등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이성이 구축한 지식과 시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기록에서 삭제된 기억의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속해온 '진리'라는 이름의 허상을 목격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사물의 죽음과 환생은 기능의 상실과 존재의 환생으로, 파편화된 시간과 공간의 가설로, 상상과 현실, 가상과 실제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세계의 질서를 이끈다. 우리는 이 붕괴와 생성, 변이의 경계면에서 사물 고유의 표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이제까지 지속해온 문명이란 이름의 사회 체계를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김성우  
2022